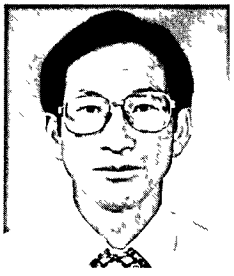
續·本草問答(譯)

裵 馨 道



▶문 藥 가운데는 계절의 이름을 가진 것이 있는데 夏枯草나 穀冬花같은 것이 그것이니 病을 다스림에 계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답 : 계절은 五行의 流運으로 陰陽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무릇 藥性을 말할 때 당연히 싹이 나는 時期와 成長하는 氣候를 말해야 한다 비록 時期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病을 다스림에는 관계가 있다 夏枯草는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싹이 올라와서 봄에 成長하여 水木의 氣를 얻으며 여름이 되면 마르는데 木이 火가 旺한 계절을 만나면 그 氣가 물러가게 되므로 肝膽經의 火를 물리치는데 쓰인다

穀冬花는 겨울의 눈과 얼음속에서 싹이 나서 꽃도 뿌리속에서 핀다 그러므로 坎中에서도 陽을 包含한 象이 되어 肺中의 陽氣를 끌고 下行할 수 있으므로 利痰止嗽의 藥이 된다

이 두가지가 모두 계절의 이름을 가지고 그 쓰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한 冬蟲夏草는 本草에는 收載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藥을 생각해 보면 정말 靈驗한 品目이다. 이것은 冬至에 蟲이 생겨서 봄을 지나 여름까지 한치정도 자라서 새끼손가락만큼 된다 夏至가 되기 전까지 벌레로만 자라다가 夏至가 되면 갑자기 벌레는 보이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싹이 나고 점차 자라서 秋分이 지나면 싹이 세치정도 자라고 풀로 된다 이것은 西蕃의 풀밭에서 나는데 땅이 모두 풀로 덮여있을 때는 가려 낼 수가 없으나 秋分이 지나고 눈이 약간 왔을 때 蟲草를 캐는 사람은 눈밭에서 눈이 몇 寸정도 녹은 곳을 찾아 호미로 한번에 찍어 파내면 거기에 蟲草가 있는 것이다.

蟲草가 눈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氣性이 純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 蟲은 動物로서 陽性인데 冬至에 생겨나서 陽氣를 받는다 (譯者註 - 冬至에 一陽이 生하고 夏至에 一陰이 生함) 夏至에 땅속으로 들어 가는 것은 陽이 陰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니 싹이 올라오는 것은 陽이 들어가고 陰이 나오는 象이 되어 지극히 神靈스러운 物品인 것이다.

그래서 下焦의 陽을 補하고자 함에는 根만을 쓰고 上焦의 陰을 補益하고자 하면 苗를 같이 쓰는 것이니 겨울과 여름의 두계절의 氣가 含化된 것이 모두 나타날 뿐인 것이다.

麥門冬, 天門冬, 忍冬, 冬靑이 모두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이겨내어 水津의 氣를 받았으므로 二冬은 能히 淸肺金하고 忍冬은 能히 淸風熱하고 冬靑子는 滋腎한다. 作用部位가 다른 것은 뿌리가 흰것은 入肺하고 덩굴지는 것은 經絡에 走하고 冬靑子는 色이 검으니 入腎하여 滋陰하게 되는 것이다

半夏는 비록 여름철의 중간까지만 生長하나 뿌리는 가을철에 굵어져서 燥金辛烈의 氣味를 가지므로 水飮의 降利를 爲主하여 陽明經의 藥이 되는 것이다. 이 또한 半夏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으니 그 실체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藥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면 生産되는 地域이나 地方, 季節, 或은 단지 氣味만을 가지고 論議하는데 각각 그 偏重함을 찾아 爲主하면 藥의 眞性이 自明해 지는 것이다

▶문 藥이 味로써 治效를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甘味를 가진 藥이 脾經에 歸入하는 것이 많다 甘味를 가진 것이 脾胃에 歸入하는 것은 맞으나, 四臟에 兼入하기도 하니 이것은 어떻게 分別할까?

■답 甘味만을 脾經에 入하는 것은 정당하나 만약 苦味나 酸味, 鹹味, 또는 辛味를 兼하면 모두가 甘味에 첨가된 味이니 四臟에 兼入하는 것이다

甘草는 순수한 甘味이니 脾陰을 補하고 胃陽을 돕는 것이다 때로는 生用하고 때로는 熟用하고 或은 知百藥하므로써 확실히 옳지 않음이 없다

黃精은 味甘하고 多汁하니 脾土의 濕을 補하고 山藥은 색깔이 희고 酸味를 帶同하였으므로 補脾하면서 아울러 肝肺에 入하는 것이다

白朮은 甘하고 苦溫하므로 補脾溫土하고 知肝氣하므로써 脾氣를 伸張시키는 것이다 蒼朮은 甘하고 苦燥하므로 胃를 乾燥시켜 去濕하는 것이다.

黃芪는 味甘하고 氣盛하므로 補氣하고 薺苨는 味甘하고 有汁하므로 生津한다 蓮米는 甘味에 酸味를 帶同하고 氣가 淸香하여 水土의 氣를 가졌으므로 補土하고 澁精止利한다.

芡實은 甘味는 적고 澁性이 많으니 이것은 潤澤한 土性의 味는 적고 收斂하는 金氣의 性質은 많고 또한 물속에서 자라는 것이라서 腎의 果實에 속한다. 그러므로 腎經에

入하여 收澁하고 止瀉利하는데 쓰이며 薏苡仁 또한 濕한 곳에서 자라니(原文에는 生水中이라고 되어 있으나 과장된 것 같다 - 譯者註) 至極한 淡味를 가지고 있어 補性도 없고 그렇다고 滲性도 없어 純粹하게 滲利作用을 한다

茯苓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淡味를 가지면 滲하지 않기 때문이다 赤石脂는 粘性과 澁性을 가지면서 味甘하여 補가 되도록 하면서 止瀉利하고 禹餘糧은 石穀가운데서도 土의 性質을 가지고 味가 甘而微鹹하니 甘은 補正하여 止利하고 鹹味는 入腎하여 滲精하니 모두 味甘함을 取하면서 또한 그 滲性을 쓰는 것인데 滲性은 없이 純甘한 龍眼같은 경우는 歸脾하는 데 또한 炎州에서 生産되면서 여름철의 火氣를 받고 자라니 火生土하므로써 補心하면서 아울러 補脾도 하는 것이다. 使君子仁은 甘味가 補脾하는데 또한 殺疳蟲도 하는 것은 氣가 香臭를 兼하기 때문이다 溫烈의 性質이 있어서 服用中에는 熱茶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熱茶를 마시면 泄하게 된다 巴豆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것을 마시면 瀉하게 되니 그 意味가 대략 비슷한 것이다

짐승에 관하여 말해 보면 黃牛肉은 甘溫하여 脾胃를 大補하고 羊肉은 비록 甘味를 가지고 있으나 羶氣(누린내)를 가져서 木의 溫性을 얻었으므로 補脾하면서 兼하여 肝도 補하는 것이다 豬肉도 味甘하나 鹹味를 兼하였으므로 水土의 寒性을 얻어서 脾를 滋補하고 腎을 潤澤하게 한다 人乳는 味甘하여 본시 음식의 汁液이니 肺胃의 氣化를 얻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胃를 滋養하여 潤澤하게 하고 血液을 滋生하여 脾의 陰을 補하니 人乳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甘松은 味甘하고 香이 强烈하므로 理脾하는 氣運이 主요, 木香의 理氣는 그 香氣가 歸脾하고 味가 微辛을 兼하여 木氣의 溫性을 얻어서 그 힘은 疎土할 수가 있다 또한 木香은 줄기가 五枝 五葉 五節로 되어 脾土의 숫자가 되므로 能히 理脾할 수 있다.

여러가지 과실도 생각해 보면 大棗는 껍질은 붉고 살은 누르며 味는 껍질이 辛味요 속살은 甘味로 火生土의 性質을 얻었으므로 脾胃를 補하는데 純全하다

배는 味甘하고 水津液을 含有하므로 脾肺를 滋潤하고 荔枝는 東南에서 生産되고 味甘酸하므로 脾와 肝에 歸入하여 溫補하게 된다. 이상으로 봐서 甘味는 모두 脾에 入하여 兼하고 있는 맛을 생각하면 兼入하는 臟器를 알 수 있고 主治도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문 苦味는 火에 屬하는 맛인데 苦味를 가진 것이 모두가 火를 補하지 않고 오히려 瀉火하는 것은 어찌된 연고일까?

■답 : 萬事가 至極하면 返復하는 法으로 陽이 極하면 陰이 生하는 것이니 卦體의

理論으로 말하면 離火卦의 中爻는 陰爻이니 이것은 離火中에 坎水를 包含하는 象이다. 무릇 藥에 있어서도 火味를 가진것은 그 속에 水性을 包含하고 있어서 火를 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정말로 水火가 서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理致이다.

黃連의 味는 正한 苦味로 바로 心經에 入하여 瀉火하고 梔子는 味苦하고 心包를 型象하므로 心包絡의 火를 瀉하고 連翹 亦是 心包를 形象하면서 質이 가볍고 味는 微苦하니 위로 떠올라 心과 上焦, 그리고 頭目의 火를 푼다. 蓮子는 心을 形象하고 蓮心이 그 안에 있고 맛이 아주 쓰니 離卦中에 陰爻가 있는 것과 비슷하여 心中의 火를 맑게 하는데 쓰이니 形象과 功效가 딱 들어 맞는 것이다.

黃芩은 味甘하고 가운데 빈 공간이 많아 터널이 되어있다. 사람몸에 있는 三焦도 水氣가 行하는 터널로서 相火를 主하는데 黃芩이 가운데가 비어 三焦에 入하고 味 또한 苦하므로 淸相火를 爲主하는 것이다. 龍膽草와 胡黃連은 味苦하고 堅澁하여 水와 木의 性質을 兼하고 있으므로 두가지가 모두 肝膽의 木火를 瀉하는데 단지 龍膽草는 뿌리가 아주 가늘고 많아서 火를 瀉하면서 아울러 降利하고 胡黃連은 守而不走하는 것이니 마땅히 자세하고 확실하게 分別해야 하는 것이다. 大黃은 味苦하고 모양이 크며 氣가 猛烈하므로 脾胃로 가서 火를 내리게 하여 다시 火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 : 味가 苦한 瀉火하는 藥이 대개 黃色인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 黃色은 土에 屬하는 것이 五行의 理致인데 임무가 끝나면 물러가는 것처럼 火의 色은 紅色인데 타고난 다음에는 黃色에 居하는 土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黃色은 火氣가 물러간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色黃味苦한 藥은 모두가 退火를 爲主하는 것이며 만약 맛이 쓰면서도 黃色이 아니면 다른 性質을 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天花粉은 白色인데 맛이 쓰고 汁液이 있으므로 瀉火하는 功은 작고 胃에 入하여 生津하는 힘은 큰 것이다.

元參은 黑色인데 맛이 쓰고 汁液이 있으므로 瀉火의 功이 작고 滋腎의 功은 큰 것이다. 牧丹皮는 色紅味苦하므로 心火를 맑게하고 行血하며 靑黛는 色靑味苦하므로 肝火를 맑게하여 熄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火性의 苦味를 가진 것은 水의 寒性도 가지고 있다. 本草를 관찰하면 자연히 명확해진다

요즘 醫者들이 苦味를 가진것은 모두 火의 燥性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많은데 火證에는 오히려 해롭다고 하는 것은 苦味가 燥性으로 化한다는 說을 모르기 때문이니 반드시 燥한 藥이 兼해지는 것이다. 蒼朮이나 乾干을 黃連과 같이 쓰면 燥해지고 生地黃

이나 白芍藥을 黃連과 같이 쓰면 어찌 燥해지겠는가. 하물며 人體의 六氣中에 熱과 火가 각기 달라서 熱은 氣分에 속하며, 淸熱하는데는 石古와 天花粉을 爲主로 하니 氣分에 入하기 때문이요, 火는 血分에 속하니 瀉火하는 데는 반드시 黃連, 黃芩이 爲主하니 血分에 入하는 때문이다.

단지 알아야 할 것은 苦寒한 藥이 아닌 甘寒한 藥은 淸熱할 수 있으나 退火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 藥을 分辨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理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문** : 火性의 苦味를 가진것은 모두 水의 寒性을 가지고 있어서 能히 淸火한다. 그런데 艾葉, 破故紙, 巴戟, 遠志는 味가 모두 苦한데도 모두 補火하니 어찌된 것인가

■**답** : 苦味가 至極한 것은 오히려 水의 性質을 가지는데 만약 微苦하다면 오히려 火를 存直시키는 本性이 있으므로 能히 補火하는 것이다. 또한 微苦한 中에도 辛溫한 氣味를 帶同하고 있다면 순전한 苦味라고 할 수는 없다. 艾葉은 味苦氣溫하고 그 싹은 能히 發火하니 溫肝補火가 能한 것이다.

破故紙와 巴戟은 苦味에 辛溫을 兼하여 破故紙는 色이 검고 種子가 堅實하니 溫腎하고 巴戟은 紫色에 뿌리가 實하여 溫肝하며 遠志는 形態가 아주 가늘어서 入心하고 苦味를 帶同하니 또한 入心하는데 兼하여 辛溫하니 心火를 補한다.

대개 味가 한가지로 순수하지 않고 섞여 있으면 氣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純全한 苦味만을 가지지 않은 것은 論議할 것 없다.

▶**문** . 辛味는 金에 屬하는 맛이다. 金의 性質이 收斂을 爲主로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辛味를 가진 藥이 모두 發散을 主로 하고 收斂을 爲主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

■**답** : 무릇 藥의 氣味에 體와 用이 있으니 서로가 반대가 되면서도 실제로는 功效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金性의 味를 가진것은 모두 木性의 氣를 받아서 木氣는 上昇하는 것이라서 辛味가 收斂을 主로 하는 것이 아니라 發散을 主로 하는 것이다. 木의 氣인 溫性은 寒을 除去할 수 있고 木의 發散하는 氣運은 막힌것을 없앨 수 있다. 薄荷는 味가 辛하고 質이 輕하여 氣가 지극히 輕揚한데 輕하면 氣가 떠오르게 되어 皮毛에 作用하고 이로써 寒氣를 發散하고 揚한 것은 氣가 上昇하여 頭目에 이르러 風寒을 제거하는 것이다

辛夷花는 나무끝에서 나는 것이므로 그 상승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고 辛味에 發散의 氣가 있으므로 腦와 鼻의 風寒을 消散시킬 수 있는 것이다 荊芥는 性質이 薄荷와 비슷

하므로 皮毛의 寒氣를 消散할 수 있으나 質과 味가 薄荷에 比하여 조금 流降하는 性質이 있으므로 能히 血分에 入하고 肌肉의 寒氣를 發散시킨다.

羌活과 獨活은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黃泉(地下)의 水氣를 얻어서 올려 싹을 기르는데 사람몸의 太陽徑을 型象하고 水中의 陽氣를 가지고 經脈에 작용하는 것이다. 味辛氣烈하니 太陽經에 入하고 頭項의 風寒을 消散시키는 것이다. 더우기 獨活은 黑色을 가지고 있어 少陰經에도 같이 들어가 太陽經에까지 작용하여 背脊의 風寒을 消散시킬 수 있는 것이다

細辛은 생김새가 가늘고 색깔이 검어서 少陰經에 入하고 味는 大辛하니 少陰經의 風寒을 溫散할 수 있다. 少陰은 寒水의 臟이니 寒하면 水氣가 上淫하는 것인데 細辛이 少陰의 寒을 消散하므로 水飮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防風은 味가 辛甘하므로 脾에 入하고 肌肉의 風寒을 消散한다. 紫蘇는 紫色으로 血分에 入하고 味辛氣香하니 血分의 風寒을 消散할 수 있으며 가지가 밑에서 부터 四方으로 퍼지므로 氣運이 四肢로 퍼져 나가며 蘇梗은 줄기 가운데가 비어 있고 하얀 膜이 있으므로 腹中의 氣를 消散하고 蘇子는 堅實하여 肺氣를 順行시켜 下降하게 하므로써 行痰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辛味라도 根枝子葉이 쓰임과 功이 다르니 종합하여 보면 性質의 輕重과 升降을 보고서 알게 되고 따라서 그 治效도 나누어 지는 것이다.

桂枝도 色味가 蘇枝와 같아서 四肢로 퍼져 나갈 수 있으나 桂枝가 더 堅實하므로 筋骨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蘇枝는 肌肉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肉桂는 桂枝보다 味가 훨씬 厚하여 氣가 더욱 凝聚하므로 木性의 極致를 이루니 味가 大辛하여 氣가 또한 大溫하니 心火를 助益하는 것은 木生火하는 중요한 약인데 그 實象은 溫肝하는 작용이 있으니 肝은 心의 母가 되어 虛則補其母하는 원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心과 肝은 모두 血分을 주관하므로 肉桂가 또한 溫血하는 要藥이 되어 仲景方의 腎氣丸에 쓰이게되는데 肉桂가 心과 肝의 火를 끌어다가 腎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附子 熟地黃, 茯苓이 肉桂의 그런 性質 때문에 따라서 入腎하게 되는 것이니 肉桂의 妙用을 잘한 것인데 桂가 自身이 入腎하는 것은 아니다 肉桂와 桂枝가 同一한 것인데 效用은 다르니 이것은 厚薄이 다름으로 因한 것인데 그러므로 昇降의 性質도 다른 것이다 대개 辛未를 가진 것은 모두 木의 本性인 溫性을 갖추고 있는데 桂는 木으로서 제대로 溫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溫肝하는데 正藥이 되는 것이다

吳茱萸와 小回香은 모두 辛溫한 木의 氣를 가지고 있는데 烏藥은 풀의 뿌리로서 자

연히 下焦로 歸入하고 小回香은 풀의 種子로서 무릇 種子의 性質은 모두 下降을 主로 하므로 烏藥과 小回香이 下焦의 胞宮과 肪胱을 溫暖하게 하는 것이다. 吳茱萸는 辛味에 苦味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씨의 性質이 下降을 主로 하므로 水飮을 下降시키고 滯氣를 順行시키는 것이다. 破故紙와 韭子는 色이 검고 性溫한데 검은색은 腎水의 색깔이고 씨는 流降을 主로 하므로 두가지 藥物이 모두 溫腎하는 것이다. 附子는 뿌리 아래에 달려있고 枝葉皮核과는 다르므로 中焦와 上焦로는 들어가지 않고 색깔이 純粹한 검은색이며 味가 辛烈하여 坎卦中에 一陽의 氣를 가지고 생겨난 의미를 가지므로 혼자서도 下焦로 가서 陽氣를 扶補하는 것이다. 極端으로 陰과 陽의 性質을 가진것은 모두가 有毒한 것인데 附子도 極烈하여 아주 純全한 坎의 陽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大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附子와 肉桂의 性質이 같지 않은데 肉桂는 地의 二數인 火氣를 가져서 補火하고 附子는 助熱하는데 熱은 水中에서 生하므로 天水의 陽을 얻었으니 附子는 純全히 氣分에 入하여 助陽한다. 그래서 腎과 膀胱의 藥이 되는 것이다. 藥을 火煆하면 毒性이 없어지는데 水中에 있는 陽毒(坎卦中의 陽)은 火를 만나면 없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陰陽이 서로 調和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요사이 附子를 소금에 묻어서 毒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은 附子의 性質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맞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溫藥은 모두 木氣를 가지고 있는데 惟獨 附子만이 水中의 陽氣를 가지고 있어서 溫腎達陽하는 正藥이 된다. 대개 木火의 氣를 가진 藥은 地二의 火를 얻게 되는 것이며 水中陽의 氣를 가진 藥은 天一의 陽을 얻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 · 木의 性質은 昇散하는 것인데 왜 酸味가 木에 屬하고 그리하여 收斂을 爲主하는 것일까

■답 : 이것 역시 相反相成하는 原理로 金木이 交合하는 理致이다

木에 屬하는 酸味를 가진 것은 모두 金의 性質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酸味로써 收斂을 爲主하는 것이다. 五味子가 咳逆上氣를 主治하는데 대개 氣는 臍下의 胞室이 있는 氣海에서 나와 衝脈을 돌아 위에 있는 肺로 들어가는데 胞室은 肝의 所司이니 或 肝이 寒冷하면 胞宮과 衝脈의 氣가 水飮을 가지고서 肺로 上衝하여 咳喘이 되는 것이며 또는 肝에 熱이 있으면 胞宮衝脈의 氣가 그 熱火를 帶同하고 肺로 上衝하여 咳喘을 일으킨다 五味子의 酸味는 肝木을 收斂하여 木氣를 거두어 들이고 위로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하여 水와 火의 두가지가 모두 上衝하여 病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酸味가 入肝하여 金의 收藏하는 性質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리하여 治病의 效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五味子는 또한 微酸하고 質이 潤澤하며 속이 空虛하여 肺가

空虛한 形象을 나타내고 잎사이에 달리므로 藥性이 輕浮하여 攻效가 오로지 斂肺, 生津에 있다

五味子가 肝氣를 收斂하여 肺氣도 收斂하도록 하니 그 性味가 더욱 流降함이 있다. 五倍子는 온전히 斂肺하므로써 그 性味가 조금 浮上하며 罌束角 또한 斂肺하여 能히 止咳하고 瀉利를 멈추게 하는데 酸味가 많지 않으며 열매속이 空間이 많고 格子모양이어서 肺와 膜膈을 닮아 있으므로 收澁의 質性이 肝에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肺에도 들어가므로 逆氣를 收斂하고 瀉利를 거두게 된다

白芍藥은 봄에 피는 꽃 중에서도 훌륭하고 뿌리의 性味는 微酸하므로 主로 肝木을 收斂하여 降火行血하는 能力이 있고 山茱萸는 味酸하고 質은 潤性이 있어 入肝하여 陰血을 滋養하고 烏梅는 酸味가 아주 强하여 肝木을 收斂하는데 能할 뿐 아니라 蚘蟲을 죽이고 腐肉을 없애니 이것들이 모두 木剋土의 원리로 酸味가 收斂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山査의 酸味를 보면 能히 肉積을 消化시키는데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烏梅의 酸味가 蚘蟲과 腐肉을 없애는 것과 그 이치가 같은 것이다.

▶**문** . 일반적으로 酸味는 모두 津液이 生産되게 하는 能力이 있는데 왜 그러한가?

■**답** : 津液은 腎에서 생기고 肝에서 소모되는데 이것은 木이 水氣를 泄하여 子가 母의 氣를 發現시키는 때문이다 酸味가 肝의 氣를 움직이게 하므로 津液이 有用하게 쓰이고 소모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酸味가 收斂을 爲主하는데 酸味가 極하면 吐逆을 發하는 것은 왜 일까 그 이유는 즉 이러하다

辛味는 升散을 主로 하는데 辛味가 極한 것은 溫降을 主로 하고 酸味는 收斂을 主로 하나 酸味가 極한 것은 涌吐를 發生시킨다 萬物의 理致가 上昇이 極에 達하면 오히려 下降하게 되고 下降이 極에 達하면 반대로 上昇하게 된다

仲景의 大小柴胡湯은 肝火로 因한 吐逆을 治療하고 吳茱萸湯은 肝寒으로 因한 吐逆을 治療하는데 알아야 할 것은 吐하는 것은 반드시 肝木이 上達하는 氣를 가져야만 吐逆이 發生할 수 있는 것인즉 吐하게 하려 할 때는 반드시 肝氣가 上行하도록 해야 吐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二礬의 酸味는 極하므로 變하여 澁味가 되었는데 酸味는 收斂하여 津液을 생기게 하고 澁味는 막아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니 肝氣가 過急하면 오히려 上逆하여 吐逆을 發生시킨다. 또한 膽礬은 銅에서 나오므로(膽礬은 黃酸銅으로 $CuSo_4$이다) 木에 屬하는 酸味를 가지면서 銅속에 金의 性質인 收斂性을 가지고 있다

金이 緩慢하면 木氣를 다스려 氣가 下行하게 하나 金이 急擊하면 木氣를 行하지 못

하게 막아서 上逆하여 吐하게 하니 金과 木이 항상 變化하고 있다는 理致를 자세히 알게 해야하므로 木의 性味를 가진것은 모두 金의 性質도 가지고 있으니 陰陽 서로 互換되나 木의 性質만은 바뀌지 않으니 藥味를 잘 硏究하여 辨別해야 한다.

▶문 : 앞의 이론과 같이 전개한다면 鹹은 水味이니 당연히 火의 性質을 가져야 하는데 왜 旋覆花는 鹹한데 痰火를 潤降시키고 澤瀉의 鹹은 濕熱을 潤利시키고 昆布와 海藻의 鹹味는 肝火를 淸解하고 芒硝, 寒水石의 鹹味는 脾火를 瀉하니 鹹味를 가진 이런것들 전부가 水의 本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火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답 : 平常한 味를 가진 藥은 本性을 그대로 가지나 味가 너무 極烈한 藥은 그 性質이 반드시 變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微苦한 藥은 心火의 藥으로 溫性을 가지나 味가 大苦하면 오히려 寒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微鹹한 藥은 모두가 寒水의 氣를 가지고 있으나 大鹹하면 熱性으로 變하게 된다. 離卦속에 陰爻가 있고 坎卦속에 陰效가 있는 것이 모두 한가지 理致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들은 바로는 旋覆花는 味가 微鹹하고 꽃이 黃色으로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니 金氣가 많고 水氣가 적어서 潤肺利金하니 순수한 鹹味로 말할 것이 없다. 昆布와 海藻는 물속에서 나고 味 또한 微鹹하며 풀의 性質을 갖고 있으므로 水와 木의 二氣를 가진 藥이다. 그리하여 淸火하고 肝木을 潤澤하게 하는 能力이 있다.

寒水石은 돌의 性質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味가 비록 鹹하나 强하지는 않고 寒水石이 있는 山에서는 물이 나는데 흘러서 샘을 이룬다. 寒水石이 순수한 水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淸熱하는 능력이 있다

芒硝는 鹹味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極甚하지는 않으므로 오히려 寒水의 性質을 가져서 瀉火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 이것은 鹹味가 屬하는 水의 本性이며 鹹味가 極하여 變化된 性質은 아니다. 만약 鹹味가 火硝의 그것이라면 짠맛이 더욱 강하여 오히려 火性으로 되어 불탈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水中의 火이다. 너무 짜게 먹으면 곧 바로 갈증이 나니 이것이 바로 핏속에 열이 생기는 한가지 例이다

西洋人은 鹽을 단련하면 鹽精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두가지를 한곳에 넣어 두면 그 경계에 玻璃가 생기는데 이 玻璃를 깨 부수면 폭발하여 불이 난다 서양에서 수뢰를 만드는 것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鹽精이 發火할 수 있으므로 소금의 짠맛 속에 火熱의 性質이 들어 있으니 水中의 火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命門의 火가 되는 것이다.

微鹹한 藥은 火를 끌고서 下行하니 앞에 말한 몇가지가 그렇고 大鹹한 藥은 火를 도와 升發하니 火硝와 鹽精이 그것이다 蜀中에 숫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돼지에게 반드

시 소금을 먹이는데 이것은 많은 암돼지를 거느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이 또한 命門의 火를 도와 왕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助陽의 微驗인 것이다.

藥 가운데 肉蓯蓉이 처음에는 馬精이 떨어진 땅에서 생겨나서 나중에는 싹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사람의 陰莖을 닮고 또한 藥味 역시 鹹하여 腎에 入하므로 氣質이 溫潤하고 强陰하니 腎中의 陽을 돕고 命門火를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완전히 煉成한 秋石은 滋陰하므로 陰痿를 다스릴 수 있는데 味가 大鹹하여 단지 命門의 火를 도와 陽物의 發起力만 좋게 하는 것이 숫돼지에게 소금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陽氣만 왕성하게 하지 陰을 滋養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秋石을 服用하는 사람이 때때로 陰이 枯渴되어 瘵疾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大鹹한 味가 助火의 性質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童便이 비록 본디 滋陰의 능력이 있으나 달여서 秋石으로 만들면 煆練이 너무 甚하게 되어 童便이 가진 성질이 그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개 水에 屬하는 味는 火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坎水中에 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학술위원 전남 순천시 남정동 61-2 화생당한약방 ☎ 061-745-0787)